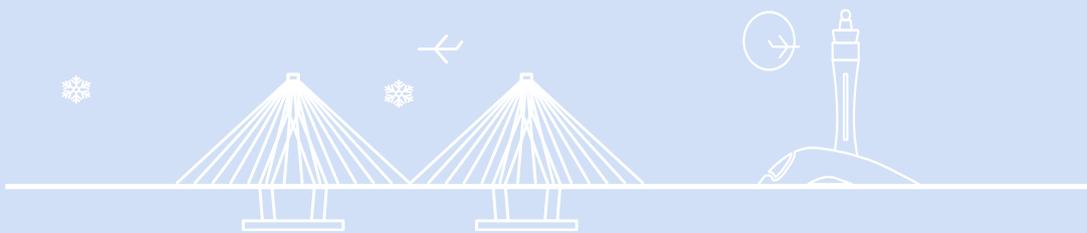


# ICDC Weekly

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

- 01 국내·외 감염병 발생동향
- 02 홍보자료



## [안내]

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의 시스템 개편 및 통계품질 개선에 따라  
2024년 감염병 통계 집계도 재정비되고 있습니다.

이에 당분간 주간 감염병 소식,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·표본감시 신고현황,  
인천광역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현황 자료를 제공해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
\* 2024년 2월 중 2024년 감염병 통계 제공 예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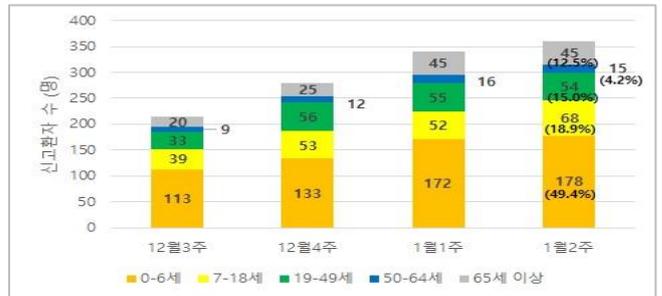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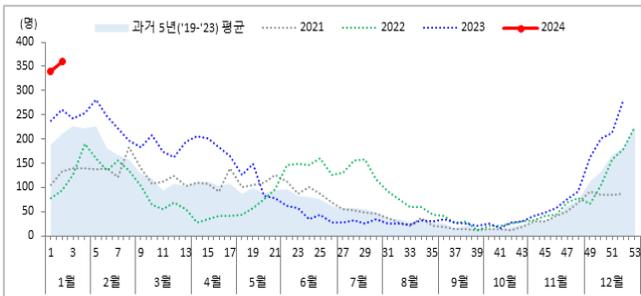
**[국내]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및 호흡기 감염병 발생증가, 설 명절 비상방역체계 조기 가동**

-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증가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(RSV)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설 명절 비상방역체계 조기 가동('24.1.19. ~ 2.18.)
- 인천광역시도 설 연휴 비상방역체계 조기 가동을 통해 감염병 선제적 대응

-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1월 2주 기준 360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\*하였으며 0~6세의 영유아 환자가 50% 정도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 주의가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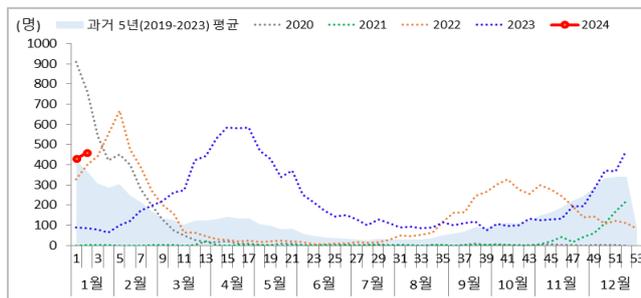
\* (최근 5년 정점) ('20.3주)353명, ('21.8주)183명, ('22.4주)190명, ('23.5주)281명, ('24.2주)360명

주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



-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(RSV)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(0~6세)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함.

주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발생 추이



-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(2. 9.~2. 12.)가 다가옴을 고려하여 비상방역 체계를 앞당겨서 운영한다고 밝혔음.
- 더불어 인천광역시도 설 연휴 시민들이 이동량이 증가로 집단 감염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설 연휴 비상 방역체계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음. 군·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 방역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편성한 인천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2월 18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할 계획임.

※ 출처: 질병관리청 보도자료,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

**[국외] 말라리아/카보베르데 - 아프리카에서 3번째로 퇴치 인증**

- 2017년 이후 지역사회 내 환자 미발생

-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카보베르데에서 2017년 이후 지역사회 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에 국제보건기구(WHO)의 말라리아 퇴치 인증을 획득하였음.
  - 카보베르데는 1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1950년대에는 모든 지역에서 말라리아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1967년과 1983년 2차례에 걸쳐 살충제 살포 등 대대적인 퇴치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나 매개 모기 방제에 실패하여 발생이 지속되었음.
  - 이에 2007년부터 국가보건정책에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고 구체적 퇴치전략을 수립하여 진단범위 확대, 조기 치료, 사례들에 대한 전수감시와 역학조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해외 여행자와 이민자들에게 진단과 치료를 무상으로 실시하였음.
  - 그 결과 2017년부터 더 이상 지역사회 내 환자 발생이 보고되지 않고 있음.
- 2017년부터 3년간 발생을 억제하여 WHO는 카보베르데에서 말라리아 퇴치되었음을 인증하였으며 카보베르데는 전 세계에서 43번째로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받은 국가이자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는 모리셔스, 알제리에 이어 3번째 퇴치한 국가가 되었음.
- 우리나라도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과거 1979년 말라리아를 퇴치한 바 있으나 1993년 이후 재출현하여 2023년 675명(잠정통계)의 국내 환자가 보고되는 등 현재도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WHO의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에 포함되어 있음.
- WHO는 2030년까지 2015년 기준으로 말라리아 발생률과 사망률을 90% 감소시키고 최소 35개국에서 퇴치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립하였음.

※ 출처: 질병관리청

2023.11.29. 질병관리청

— 추운 겨울 날씨에도 유행하는 —

#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

노로바이러스는 일상 환경에서도 3일간 생존이 가능하고,  
감염력이 높아 예방과 대응이 중요합니다.

### 개인위생 지키기



비누로 30초 이상  
손 자주 씻기



변기 뚜껑 닫고  
물 내리기

###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먹기



음식은 충분히  
익혀먹기



증상이 있다면  
식사 준비하지 않기

**증상이 나타나거나, 환자가 발생했다면?**  
\* 주요 증상: 오심, 메스꺼움, 구토, 설사, 복통, 오한, 발열, 근육통

### 공간 구분하기



증상이 있다면  
집에서 쉬기



환자와  
생활공간 분리하기

### 환경 소독하기



자주 접촉하는  
물건 소독하기  
(화장실, 문 손잡이, 전화기 등)



소독 시 마스크 및  
장갑 착용하기



**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,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!**

※ 출처: 질병관리청



# 산후조리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(RSV) 감염증 예방 수칙

\*RSV, RESPIRATORY SYNCYTIAL VIRUS

▶ **신생아를 돌보는 사람**은 신생아와 접촉 전·후 반드시 손씻기

- 신생아 접촉 전·후
- 분유 준비 전·후
- 기저귀 교환 전·후 등

▶ **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**은 산후조리원 출입 제한

▶ **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**은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 제한

▶ **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**는 다른 신생아와 구별된 공간에서,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돌보기

## RSV 감염증을 예방하려면

### 기침예절 실천

나와 타인을 위한 배려, 기침예절 실천하기



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



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



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



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

###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

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



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



코를 풀거나 기침, 재채기 후, 외출 후, 배변 후, 식사 전·후, 기저귀 교체 전·후 등

### 올바른 손씻기 6단계



1 손바닥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



2 손등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



3 손가락 사이 손가락 사이를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



4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



5 엄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둘러싸면서 문질러 주세요



6 손등 뒤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등 문질러주세요

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



※ 출처: 질병관리청

### 모기와 거리두기 실천으로 말라리아를 예방하세요!

질병관리청

### 말라리아란?

국내 말라리아 유행지역

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, 주로 인천,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에서 5월부터 10월 사이에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.

### 모기는 주로 이런 곳에서 살아요

말라리아 매개모기는 5월~10월에 풀숲이나 웅덩이 근처 등에서 서식하고 주로 야간(밤 10시부터 새벽 4시)에 활동합니다.

### 말라리아 증상은?

몸이 으름을 느끼고 열이 나는데, 코로나와 같지 않아요?  
감기처럼이나 좀 낫았을 것 같은데 다시 열이 나네요... 감기증상에 해당하나요?

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**오한, 고열, 발한 등 증상이 48시간 주기로 반복**됩니다. 말라리아는 잠복기(7일~12개월)가 다양하므로 모기에 물린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### 검사 및 치료

말라리아는 신속진단검사(RDT)로 15분 만에 간단히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, 신속히 치료하면 완치 가능합니다.

### 이것만은 주의해주세요

말라리아는 코로나19 또는 감기몸살과 증상이 비슷해서 해열진통제만 복용할 경우 말라리아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**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여행력 및 모기물림을 의료진에게 알리고**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# 말라리아 예방수칙 4단계

- 야간활동자제**  
모기는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해를 늦게에서 새벽까지 야간 활동 자제
- 밝은 색 옷 입기**  
모기는 어두운 색깔을 좋아하므로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옷 착용
- 가피제와 살충제 사용**  
상처나 얼굴 주변을 피해서 의안인물로써 허가된 가피제 사용
- 방충망 정비**  
실제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충망에 틈이 없게 정비해서 점검

###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.

말라리아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기와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!

---

## MEMO

# ICDC Weekly

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

